절체절명 순간도 꿀 빠는 중생의 삶



新 불교사자성어

⑲ 안수정등(岸樹井藤)

'안수정등(岸樹井藤)' 은 '강 언덕에 있는 나무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 란 뜻이다. 문자의 겉은 그러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숨은 뜻은 무엇일까. 불설〈비유경(比喩經)〉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위태로운 삶의 상태' , 또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 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탐욕(貪)과 분노 · 질투 · 증오심(嗔) 그리고 무지(痴)에 빠져 있는 몽매한 인간의 존재 형태를 불교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안수(岸樹)' 는 '강기슭에 있는 나무' 를 가리키는데, 이 비유에서는 절벽 꼭대기에서 기생하고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다. 강 언덕이나 절벽에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나 폭풍을 만나면 쓰러지기 쉽다. 그리고 '정등(井藤)' 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 넝쿨' 로, 넝쿨에 매달려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인생을 가리킨다. 중생사를 절묘하게 표현한 말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관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수정등' 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 나그네가 광막한 들판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사나워 보이는 큰 코끼리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그네는 공포에 질려서 죽을힘을 다해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다 막다른 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끝에 이르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다행히도 절벽 끝에 제법 큰 나무가 있었고(岸樹), 등나무 넝쿨이 절벽 아래 우물로 늘어져 있었다. 등나무를 타고 내려가면 코끼리의 공격을 피해 살 수 있었다. 나그네는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안도의 숨도 잠깐, 등나무 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 밑에는 독사 네 마리가 고개를 들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었다. 또 독룡(毒龍)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매우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다시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자니 사나운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아래로 내려가자니 독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비극적인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등나무 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이빨로 갉아먹고 있었다.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다. 넝쿨을 붙잡고 있는 팔은 점점 힘이 빠져서 기력을 다해 가고 있었다. "이제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선가 액체 한 방울이 입가에 떨어져 내렸다. 달콤한 꿀물이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꿀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지친 나그네는 혀로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먹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나그네는 달콤한 꿀맛에 방금까지 공포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광막한 들판' 은 끝없는 어둠의 세계인 무명(無明)을 비유한 것이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코끼리는 '시간의 속도' , '세월의 무상함' 을 가리킨다.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는 해와 달 즉 낮과 밤을 가리키고, 쥐가 등나무를 갉아 먹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목숨을 가리키고, 네 마리 독사는 지수화풍 사대를, 꿀은 오욕락(五慾樂)을 가리킨다.

불교 고사성어 '안수정등(岸樹井藤)' 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자성어이다. 달콤한 꿀맛에 빠져서 참된 인생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성에 대한 욕망,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오래 살려고 하는 욕망 등 오욕락을 '인생 최고의 가치' 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이 육체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애착할 것이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꿀 한 방울(오욕락)에 빠져서 무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생사고해' 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화(說話)가 바로 '안수정등' 의 이야기이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등나무 넝쿨에 매달려, 꿀 받아먹는데 정신이 팔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날 수 있을까? 코끼리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독사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 매달려 있는 팔의 힘은 기진맥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을까? 〈윤창화 민족사 대표〉

"부축해 일으켜 세울 줄도 알아야" 의미는?



격절록 강설

⑲ 앙산지설화 2

[評唱 2]

仰山有如此為人手段. 所以 一日指雪獅子問云 "還有過得此色者麼" 且道 他意在什麼處. 莫是明一色邊事麼. 且得沒交涉. 既不明一色邊事 又明箇什麼. 所以道 "鷺鷥立雪非同色 明月蘆花不似他" 巴陵鑒和尚 僧問 "如何是提婆宗" 鑒云 "銀椀裏盛雪"

앙산에게는 이와 같이 사람을 위하는 솜씨가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설사자(雪獅子)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색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저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일색변사(一色邊事, 절대평등=공)를 밝힌 것이 아닌가?(만약 이렇게 안다면) 전혀 관계가 없다. 일색변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밝힌 것인가? 그래서 이르기를 "해오라기가 눈(雪)에 서 있어도 같은 색이 아니요, 밝은 달과 갈대꽃이 서로 같지 않네"라고 하였던 것이다.

파릉 감(巴陵鑒, 파릉호감 생몰연대 미상) 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바종(提婆宗)입니까?"

호감이 말했다.

"은주발에 눈이 가득하다(銀椀裏盛雪)."

雪竇拈拄杖 示眾云 "把斷世界 不漏絲毫 還搆得也無 所以 雲門道 '直得乾坤大地 無絲毫過患 只是轉物 不見一色 猶為半提 直得如此 更須知有全提時節' 諸上座 翠峯若是全提 盡大地人並須結舌放一線道 轉見不堪" 以拄杖一時打散.

설두가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세계를 꽉 쥐니 실 끝만큼도 새지 않는다. 알겠는가? 그래서 운문이 말하기를 '건곤대지에 실끝 만큼의 허물도 없게 되었더라도 다만 경계에 굴림을 당할 뿐이다. 일색(一色)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반만 들었을(半提) 뿐이다. 이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모름지기 온전히 드러내는(全提)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하였던 것이다. 여러 상좌들이여! 취봉(翠峯, 운문)이 만약 전부 드러낸다면 온대지 사람들의 혀가 모두 굳어져버릴 것이고, 한 가닥 길을 터 주더라도 지견만 굴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주장자로 쳐서 한꺼번에 흩어버렸다.

雪竇悟到這般田地 方可為人. 老僧道瞎 諸人作麼生會. 雲門應時應節 但與推倒用 拈仰山意 又被雪竇拈道 "他只解推倒 不解扶起" 且道 雪竇意在什麼處.

설두는 깨달아 이런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을 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승이 말하기를 "눈이 멀었다(瞎)!"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운문은 시절인연에 응해서 다만 밀어 넘어뜨리는 것(推倒) 만을 써서 앙산의 뜻을 염했고, 또한 그래서 설두가 "그는 다만 밀어 넘어뜨릴 줄만 알았지, 부축해서 일으켜 세울 줄은 을 몰랐다"고 염했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雪竇意)이 어디에 있는가?

※鷺鷥立雪非同色 明月蘆花不似他와 관련해서 〈전등록〉 제29권, 동안(同安) 찰(察) 선사의 십현담(十玄談)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枯木巖前差路多 行人到此盡蹉跎 鷺鷥立雪非同色 明月蘆花不似他 了了了時無所了 玄玄玄處亦須呵 慇懃為唱玄中曲 空裏蟾光撮得麼"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⑲ 믿음 편 19

왜 '佛者'가 아니라 '佛子'인가?

붓다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이들을 가리켜 흔히 '불자' 라고 한다.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불자는 불교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 불(佛)에 놈 자(者) 자를 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붓다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아들 자(子) 자를 쓴다는 걸 알고서 조금 의아했다. 왜 불교인이 아니라 붓다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초기경전인 〈디가 니까야〉 제3품 27번의 이름은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이다. 여기에는 바라문 출신으로 붓다의 제자가 된 사문들의 아픔이 소개되어 있다. 어떻게 최고의 계급인 바라문이 크샤트리아 출신의 붓다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느냐는 비난이 그들에게 쏟아졌던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향한 열정과 붓다의 인격에 매료되어 출가했지만, 자신들을 향한 바라문들의 비난에 못내 힘겨워했다.

붓다가 활동했던 당시 인도는 엄격한 계급사회였다. 바라문들은 신의 입에서 나온 적자이기 때문에 신의 팔이나 다리, 발에서 나온 계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절대원칙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들뿐이었다. 그런데 크샤트리아 출신의 붓다가 진리를 깨닫고 바라문들이 그의 제자가 되어 정신문화를 전수받았으니, 그들 스스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오랫동안 독점했던 영역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그들은 불편한 심기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환히 알고 있던 붓다는 바라문 제자를 불러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람의 귀천은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붓다에 의하면 사람의 귀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진리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면서 진리대로 살면 수드라도 귀한 존재이며, 악한 행위를 하면 아무리 바라문이라 하더라도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교의 인간존중과 평등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당시 출가한 사문들은 계급과 가문, 성씨 등 모든 배경이 달랐다. 그러나 출가한 순간 그러한 배경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람 그 자체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였다.

"나는 사문 석가의 아들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전율을 느꼈다. 불자로서 당당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한 이들은 정신적으로 모두 그의 아들과 딸이 된다. 성(姓)도 이 씨(氏)나 박 씨가 아니라 모두 석(釋) 씨가 된다. 부모님께서 주신 내 이름은 이창구지만, 불교에 귀의하여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석일야(釋一也)가 된다.

그런데 아들과 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기 마련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DNA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문 석가의 자녀로서 정신적 DNA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성(佛性)이 바로 그것이다. 붓다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佛)의 성품(性)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불성을 잘 가꾸어 바르게 성장하면 붓다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즉,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붓다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를 신앙하는 이들을 불교인이 아니라 붓다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붓다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이나 출신이 아니라 법, 즉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붓다도 세속적 권위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향하는 진리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곧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다. 불자라고 하면서 진리의 상속자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의 상속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태어나면서 흙수저, 금수저 등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오늘날 '나는 사문 석가의 아들이다' 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 안에 차별이 아닌 평등과 인간존중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불자로서 부끄러운 아들, 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특허청 디자인등록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 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644-1102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